여론브리핑 제67호 (2009. 12. 19)

EAI · 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44.1%, 전월대비 4.9%p 상승
정당지지 정체 한나라당 28.1%, 민주 19.9%

EAI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공동 매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이내영 고려대)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2009년 2월부터 매달 유권자들의 정치사회인식의 분포와 변화를 추적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한다.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선호를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과정이 필수적이다. 매월 20일 전후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를 통해 민의에 기반한 대의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여론브리핑 제67호 대표집필 : 정한울 · 정원칠

1. MB 국정지지 상승세로 마감: 44.1% 긍정평가 전월대비 4.9%p 상승
2.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28.1%, 민주당 19.9%, (가)국민참여당 1.8%, 무당파 30.4%
3. 한 전총리 수사 “정치 의도 개입” 48.7% vs. “정당한 수사” 36.9% vs. “유보” 14.5%
4. [부록] 12월 국정지지/정당지지율 및 현안 교차표

조사개요

조사일시 : 12월 19일
표본크기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표본추출 : 성, 연령, 지역 인구비례에 맞게 표본할당 후 무작위 추출 (가중치 부여)
표집오차 : 95%신뢰수준 ±3.5%
응 답 율 : 13.8%
조사방법 : 전화조사(CATI)
조사기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 www.eai.or.kr)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www.hrc.co.kr)

EAI 정기여론조사 연구팀

팀 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정원칠(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인용 시 "동아시아연구원(혹은 EAI) ·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결과임을 명기해주십시오.

▫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018-280-3230/hwjeong@eai.or.kr)

EAI 정원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017-279-4536/cwc@eai.or.kr)

▫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1. 국정지지율 분석 : MB 지지 44.1%, 2009년 상승세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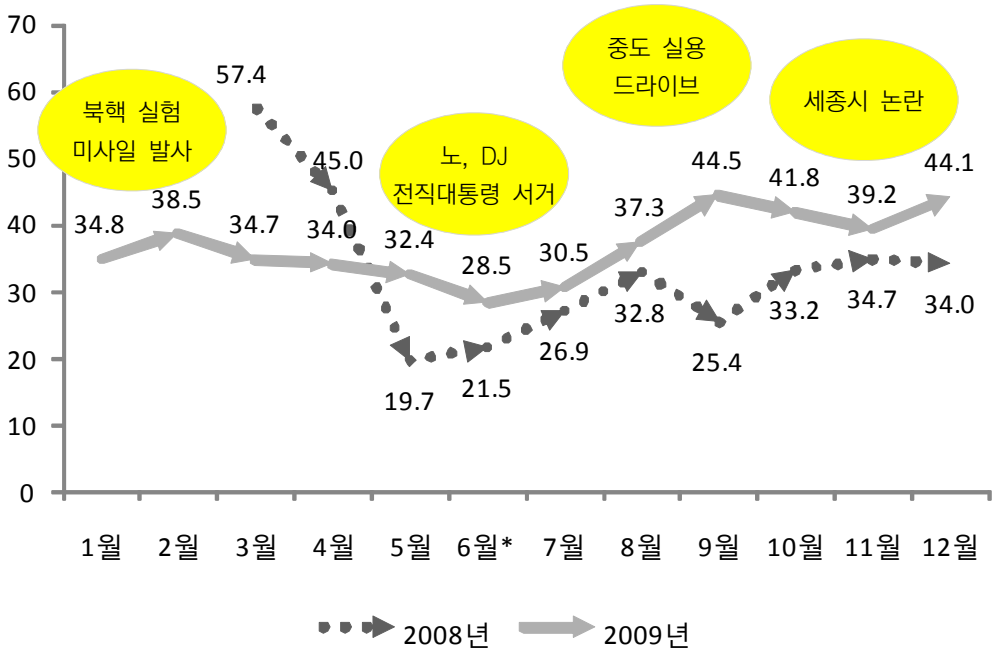
EAI 여론분석센터_정한울 부소장 · 정원칠 선임연구원

대통령 지지율, 두 달 연속 하락 후 반전, 세종시 등 갈등 완화

9월 44.5%→ 10월 41.8%→11월 39.2%→44.1%

12월 19일 실시한 올 해 마지막 정기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4.1%의 지지(매우 잘하고 있다 9.5%,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6%)를 받아 지난 9월 이래 두 달 연속 지지율 하락세에서 벗어나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다. 별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4.1%, 전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18.7%로 부정적 평가가 52.8% 절반 수준이었고, 모름/무응답은 3.1%에 그쳤다. 이는 동아시아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12월 19일 실시한 12월 정기여론바로미터 조사 결과다. 전국 성인남녀 800명 대상으로 전화조사방법으로 진행했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 (응답율 13.8%)였다.

[그림1]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변화(%)



주: 2008년 3월~2009년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자체조사가 아닌 언론에 보도된 조사결과를 취합함.

기관	R&R	KSOI	중앙	중앙	서울	EAI	중앙	내일	내일	내일	한국	한겨레
시점	3/26	4/22	5/31	6/20	7/14	8/29	9/18	10/3	10/20	11/16	12/29	1/31
지지율	57.4	45	19.7	21.5	26.9	32.8	25.4	33.2	25.6	34.7	34	34.8

[취임2년차 국정 지지율 변동 결산] 2009년 국정 지지 관리, 취임 1년차에 비해 개선

경제위기, 북한발 안보불안, 남남갈등 등 3대 악재 봉합

중도실용주의, 지지율 상승의 견인차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 한 해 동안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각종 정치, 사회, 경제적 불안요인 등으로 지지율의 급락을 거듭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최소한 국민들의 지지 확보 노력이 적지 않은 결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집권 1년차인 2008년 3월 57.4%에 달했던 취임 초 높은 지지율이 불과 촛불 정국이 한창이었던 5월 조사에서 10%대까지 떨어졌지만, 촛불 정국 이후 꾸준히 30%대를 유지해왔다.

올 해도 작년 하반기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 북한의 로켓발사(4월), 제2차 북핵실험(6월), 제3차 서해교전(11월) 등의 '북한발 안보 불안',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5월, 8월)와 미디어법(6월), 세종시(10-11월), 4대강(11월-12월) 등으로 심화된 남남갈등 등 적지 않은 악재들이 있었다. 그러나 중도 실용행보 노선 추진을 계기로 이들 악재들에 대한 관리와 봉합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40% 중반대의 지지율로 2009년을 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촛불 정국 이래 30% 초반대에 머물렀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6월 노전대통령 서거 국면 이후로는 30% 후반대에서 40% 중반대의 지지율을 유지함으로써 집권 1년 차에 비해 정부의 국정관리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세종시 논란과 4대강 사업 등 정국 갈등의 뇌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격렬한 정치사회적 갈등 국면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이 지지율 반전의 핵심 요인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5일 조사에서 44.5%로 최고 점수를 받은 이후 10월 24일 조사에서 41.8%로 소폭 하락하고 11월 조사에서는 국정지지율 39.2%로 다시 30%대로 떨어진 바 있다. 이 시기에 청와대 참모진의 각종 추문이나 정운찬 신임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시작된 세종시, 4대강 사업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유발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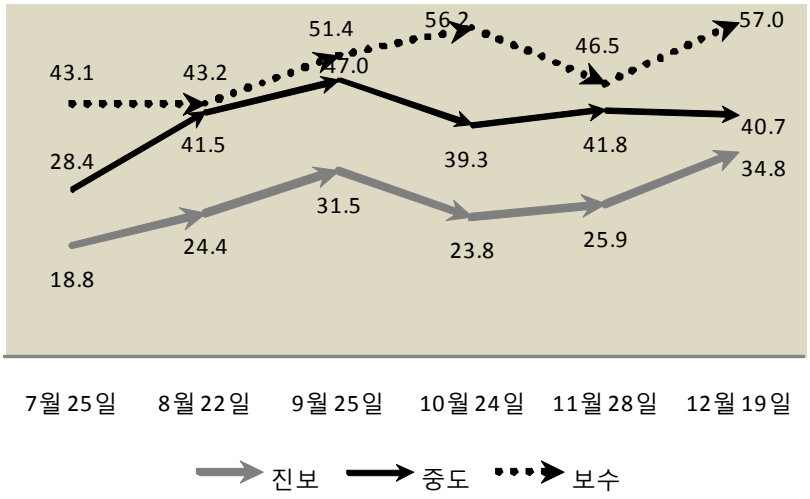
그러나 국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을 통해 세종시 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설득과 함께 잠시 주춤했던 서민행보를 다시 강화한 것이 취임 이래 이명박 대통령 비판의 단골 메뉴였던 기득권 대변, 독선적인 밀어붙이기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데 주효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11월 말 두바이 지급불능 선언으로 유발된 제2의 경제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조기에 진정되고 내년도 한국경제에 대한 안팎의 평가가 우호적인 것도 지지율 반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지 계층 및 비토 계층 모두 지지율 상승, 중도층 관망

정치사회적 갈등이나 경제위기, 남북관계 등 외부 불안 요인이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지

율 하락이 나타났던 지지층과 반대계층 모두에서 지지율이 개선되었다. 12월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는 40.7%의 지지로 지난 달(41.8%)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통령 평가에서 특별한 변화 없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보수층에서는 10.5%p 상승하여 57.0%, 비토계층인 진보층에서도 전월 대비 8.9%p 상승하여 34.8%를 기록했다.

[그림2] 이념성향별 국정지지율 변화 : 7월-12월(%)



지역별로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보면 최대 지지반인 TK 지역에서 전달에 비해 6.0%p 상승한 65.0%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지난 달 조사에서 32.5%수준까지 떨어졌던 PK 지역에서 13.8%p 상승하여 46.3%의 지지를 받았다. 세종시 문제를 두고 친이, 친박계간 갈등이 심화되다 최근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통합 움직임 등이 가시화되면서 여권 지지층의 결집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46.8%, 인천/경기 43.6%로 수도권에서는 전국 평균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한 반면 이명박 대통령 반대여론이 강한 대전/충청권과 호남권에서도 지지율 상승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현 정국의 뇌관이 되고 있는 충청권의 경우 지난 달 조사에서 31.9%였지만 이번 달에는 6.0%p 상승한 37.9%였고, 호남지역에서도 지난달 16.7%에서 24.1%로 7.4%p 상승했다. 상승폭이 오차범위 이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석의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지난 달 이후 급격한 지지율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세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 61.9%로 지난 달에 비해 7.2%p 상승했고, 20대의 경우 27.7%, 30대는 31.4%, 40대에서는 44.1%가 대통령의 국정지지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지난 달 조사에서 20.0%에 그쳤던 20대에서 7.7%p 가량 지지율이 회복되었고, 30대 40대의 경우 지난달과 비슷하거나 소폭의 상승했다. 여전히 젊은 층이 대통령 비토 세력, 50대 이상의 고령층이 대통령 지지기반이 되는 패턴에는 변화가 없지만 전달에 비해 지지층과 비판계층 모두에서 지지율 상승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소득계층에서 48.8%, 100~200만원대 계층에서는 49.9%로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많았다. 200~300만원 층에서는 43.9%,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41.7% 수준이었고, 300~400만원 소득계층에서는 34.7%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학력별로도 지난 11월 조사에서 지지율 하락 경향이 두드러졌던 중졸 이하 층에서 11.6%p 상승한 56.3%의 높은 지지를 기록했고 고졸 계층에서는 48.0%로 지난 달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한 대재이상 층에서도 4.5%p 상승한 37.5%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별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의 78.8%가 대통령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높은 결집력을 보여주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6.8%p 상승한 22.3%, 정치적 색채가 옅은 무당파층에서도 6.8%P 상승하여 35.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표1] 대통령 지지기반 전월 대비 변화 (%)

	조사시점				증감 분석	
세대	9월 26일	10월24일	11월28일	12월19일	10월→11월 (1.6%p↓)	11월→12월 (4.9%p↑)
20대 이하	33.7	25.9	20.0	27.7	-5.9	7.7
30대	27.6	25.6	31.0	31.4	5.4	0.4
40대	41.1	37.5	40.9	44.1	3.4	3.2
50대 이상	64.0	64.4	54.7	61.9	-9.7	7.2
지역						
서울	46.0	47.1	43.7	46.8	-3.4	3.1
인천/경기	46.5	41.9	42.5	43.6	0.6	1.1
대전/충청	40.0	42.8	31.9	37.9	-10.9	6.0
광주/전라	25.9	24.3	16.7	24.1	-7.6	7.4
대구/경북	65.0	48.6	59.0	65.0	10.4	6.0
부산/경남/울산	40.2	44.1	32.5	46.3	-11.6	13.8
강원/제주*	46.9	29.4	44.7	36.5	15.3	-8.2
소득						
100만원 미만	55.3	60.8	53.2	48.8	-7.6	-4.4
101~200만원	51.7	45.0	41.9	49.9	-3.1	8.0
201~300만원	38.4	38.7	33.0	43.9	-5.7	10.9
301~400만원	43.2	34.2	43.4	34.7	9.2	-8.7
400만원 이상	38.7	36.4	34.7	41.7	-1.7	7.0
학력						
중졸이하	62.5	62.8	44.7	56.3	-18.1	11.6
고졸	49.7	46.9	47.8	48.0	0.9	0.2
대재이상	36.1	34.3	33.0	37.5	-1.3	4.5
정당지지						
한나라당	80.3	82.7	79.4	78.8	-3.3	-0.6
민주당	18.7	16.1	15.5	22.3	-0.6	6.8
무당파	35.0	33.7	29.0	35.8	-4.7	6.8

주: 800명 기준 오차범위가 ±3.5%이다. 하위집단의 경우 오차범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200명 샘플의 경우 ±7.0%)에 전월대비 지지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지지율 수치 변화를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강원/제주는 합해 33명으로 해석에서 제외한다.

2. 정당 지지율 분석 : 한나라당 28.1%, 민주당 19.9% 양당 지지 정체

한명숙 전총리 수사 : “정치적 의도 개입” 48.7% vs. “정당한 수사” 36.9%

EAI 여론분석센터_정한울 부소장 · 정원칠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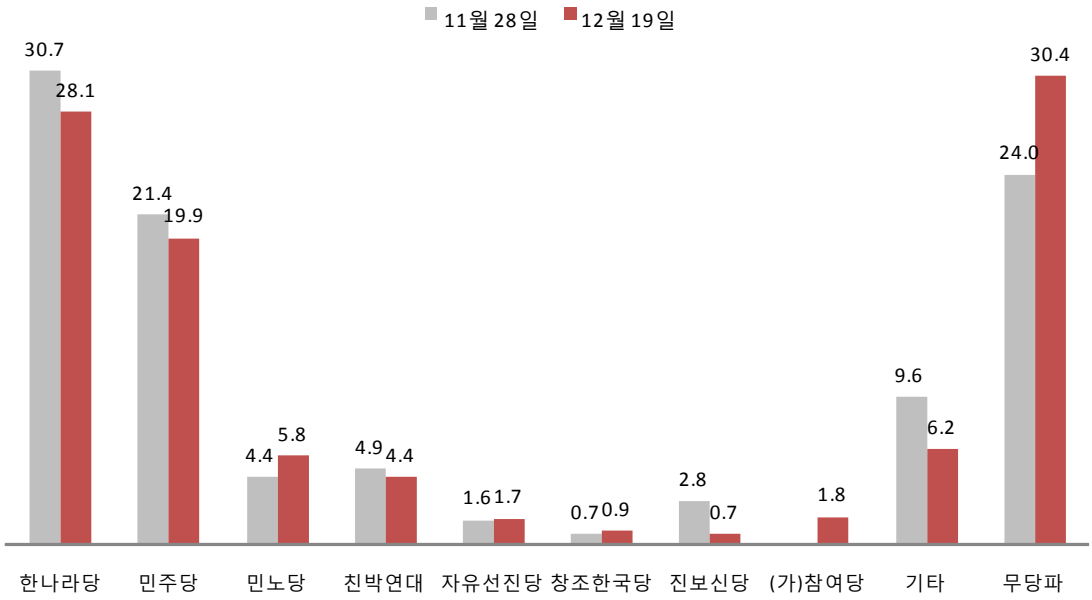
정당지지 정체 : 한나라당 30.7%→ 28.1%, 민주당 21.4%→19.9%, 무당파 24.0%→ 30.4%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도 한나라당 지지율은 정체

한 전 총리 수사를 계기로 반전 꾀하는 야당 역시 지지율 정체

동아시아연구원(EAI)과 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의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 한나라당 지지율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20%대 전후로 진입한 이래 여야 정당의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전월 조사에서 30.7%였지만 12월 조사에서는 28.1%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고, 민주당 역시 이번 조사에서 19.9%의 지지를 받아 11월 조사의 21.4%의 지지율에 못 미쳤다. 민주노동당 5.8%, 친박연대 4.4%로 뒤를 이었고 자유선진당 역시 1.7%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그림1] 11~12월 정당 지지율(%)



[표1] 정당지지율 변동(2009년 2월-12월)(%)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기타	(가칭)국민참여당	무당파***
2/21	34.9	16.4	2.7	6.7	-	1.5	2.5	3.1	-	32.2
3/21	35.8	18.6	4.0	7.1	-	3.5	2.8	2.2	-	25.9
4/19	34.5	14.7	3.1	6.8	-	1.8	2.9	2.1	-	34.0
5/23	29.8	21.8	4.2	6.4	-	1.2	2.2	3.1	-	31.2
6/5*	22.3▼	22.7▲	1.9▼	5.2▼	3.3	1.0▼	1.7▼	0.3	-	41.6▲
6/20	29.0▲	23.9▲	3.7▲	6.2▲	-	1.6▲	2.4▲	4.3▲	-	29.0▼
7/25	26.9▼	21.8▼	3.0▼	6.6▲	4.2	2.1▲	2.0▼	2.7▼	-	30.7▲
8/22	27.6▲	22.0▲	3.8▲	6.2▼	4.9▲	1.7▼	2.3▲	1.5▼	-	30.1▼
9/26	31.9▲	20.7▼	2.0▼	5.6▼	5.2▲	0.8▼	1.6▼	7.9▲	-	24.4▼
10/24	27.6▼	16.5▼	2.1▲	6.5▲	3.5▼	1.1▲	1.8▲	2.6▼	-	38.3▲
11/28	30.7▲	21.4▲	1.6▼	4.4▼	4.9▲	0.7▼	2.8▲	9.6▲	-	24.0▼
12/19	28.1▼	19.9▼	1.7▲	5.8▲	4.4▼	0.9▲	0.7▼	6.2▼	1.8**	30.4▲
전월비 증감	-2.6	-1.5	0.1	1.4	-0.5	0.2	-2.1	-3.4	-	6.4

* 6월 5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 · 매일경제 공동 긴급정치현안조사(600명) 결과임

** 12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물음

*** 지지정당 없음, 모름/무응답을 합한 값

한나라당, 대통령 지지층의 50% 만 지지 유지

민주당, 대통령 비판층의 28.7%, 진보층의 24.6%만 지지층 흡수

한나라당의 경우 최근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층의 확대를 정당 지지기반의 확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11월 조사에서 62.1%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0.3%로 크게 줄어 들었다. 친이, 친박계 간 불협화음이나 청와대를 당혹스럽게 한 정몽준 대표의 대통령, 여야 대표 회담 제안 등으로 한나라당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 4대강 추진 의지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충청권과 호남지역에서 11월에 비해 각각 6.7%p, 6.2%p 상승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충청권에서조차 지지율이 18.9%로 25.4%의 지지를 받은 한나라당에 뒤처지고 있다. 호남에서는 50.7%의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한나라당 역시 전월 대비 7.4%p 상승한 11.4%의 지지를 받아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효과를 상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비판세력과 진보 및 중도성향의 유권

자들을 지지기반으로 끌어들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의 28.7%의 지지를 얻는 데 그치고 있다. 진보층에서도 24.6%, 중도층에서는 21.0%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후 지방선거 국면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특히 친노 신당의 인지도가 높아질 경우 야권의 선거 및 정책 연대 과정에서 야권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의 위상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2] 11월~12월 사회계층별 정당지지 변화(%)

	한나라당 지지		민주당 지지		전월 대비 12월 지지 증감 분석	
세대	12월19일	11월28일	12월19일	11월28일	한나라당(2.6%p↓)	민주당(1.5%p↓)
20대 이하	19.8	20.3	**24.8**	30.9	-0.5	**-6.1**
30대	17.9	19.5	**28.2**	23.9	-1.6	**4.3**
40대	**25.1**	31.2	16.3	19.9	**-6.1**	-3.6
50대 이상	**41.6**	43.6	14.2	15.1	**-2.0**	-0.9
지역						
서울	30.1	30.4	**15.3**	22.5	-0.3	**-7.2**
인천/경기	**25.7**	35.4	22.7	19.6	**-9.7**	3.1
대전/충청	25.4	28.2	**18.9**	12.2	-2.8	**6.7**
광주/전라	**11.4**	4.0	**50.7**	44.5	**7.4**	**6.2**
대구/경북	**43.7**	49.5	9.0	8.6	**-5.8**	0.4
부산/경남/울산	32.0	28.5	**11.9**	22.5	3.5	**-10.6**
강원/제주*	28.1	34.4	9.4	19.9	-6.3	-10.5
학력						
중졸이하	42.4	37.7	**20.1**	14.3	4.7	**5.8**
고졸	**25.7**	36.9	17.9	20.9	**-11.2**	-3.0
대재이상	25.7	25.4	21.3	23.7	0.3	-2.4
국정 지지 여부						
국정 긍정평가	**50.3**	62.1	10.1	8.5	**-11.8**	1.6
국정 부정평가	10.3	9.9	**28.7**	31.3	0.4	**-2.6**
이념						
진보	20.3	17.2	**24.6**	30.0	3.1	**-5.4**
중도	27.6	32.0	21.0	21.8	-4.4	-0.8
보수	**35.0**	40.2	16.1	15.0	**-5.2**	1.1

친노신당 (가칭) 국민참여당 지지율 1.8% 그쳐, 국민 인지도와 정당 지지기반 저조
무당파 30.4%, 기존 정당 정당 지지 이탈자 흡수에 한계

유시민 전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의사 발표 및 친노진영으로 분류되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로 관심이 모이고 있는 친노신당 (가칭) 국민참여당의 경우 아직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지지를 크게 받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하

여 조사한 결과 1.8%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 현재 창당준비 및 당원확대에 힘쓰고, 현재 한명숙 전총리 수사과정과 정치권의 지방선거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신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는 있지만, 아직 많은 국민들 사이에 인지도가 크게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후 창당과정이 본격화되고 현재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대한 야권의 공조가 가시화 될 경우 야권 지지층의 지지를 얼마나 흡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달 24.0%에 달했던 무당파 층이 이번 조사에서는 30.4%로 늘어났다. 주요정당들이 타 정당 지지 이탈자들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뚜렷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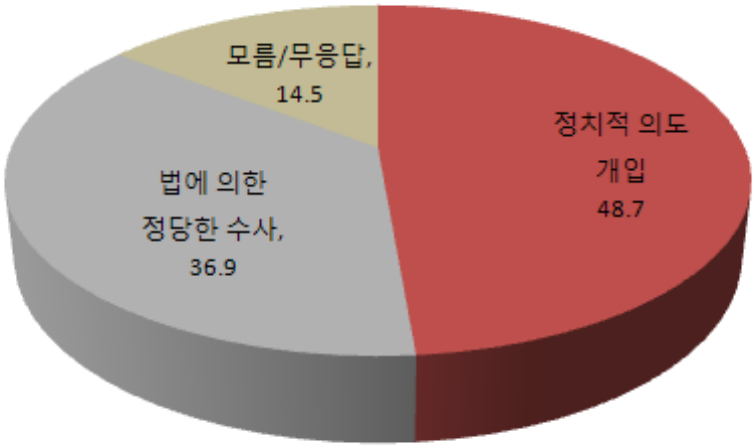
3. [현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

한명숙 전총리 수사 : “정치적 의도 개입” 48.7% vs. “정당한 수사” 36.9%

최근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 재임시절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는 본인은 물론 야권은 검찰의 수사가 유력 차기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 차원의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야권의 움직임은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2010년 지방선거 공조체제를 모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한 전 총리의 혐의 사실 입증에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격적인 체포영장의 발부와 구인과정을 신속하게 밟아 나가고 있다.

실제 이러한 검찰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물어 본 결과 응답자의 48.7%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한 수사라고 답했고 법에 의한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은 36.9%였다. 모른다고 답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은 응답 유보층 역시 14.5%나 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검찰수사에 대해 한 전총리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내막이 드러나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후 수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이 생길 경우 현재의 응답 유보층을 비롯하여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 입장으로 수렴될지가 한명숙 전 총리 금융수수혐의 사건의 전개과정은 물론 향후 지방선거까지의 정국변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림1] 한명숙 전 총리 금품수수혐의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
정기 여론조사 결과표 (12월)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800명
표본추출	2008년 12월 26일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5%
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응답율	13.8%
조사기간	2009. 12. 19 (1일간)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응답자 분포표

Base=전체	사례수 (명)	%
▣ 전 체 ▣	(800)	100.0
○ 성 별 ○		
남 자	(395)	49.4
여 자	(405)	50.6
○ 연 령 ○		
19 - 29 세	(164)	20.5
30 - 39 세	(177)	22.1
40 - 49 세	(181)	22.7
50 대 이 상	(277)	34.6
○ 학 력 ○		
중 졸 이 하	(123)	15.4
고 졸	(239)	29.9
전문대 재 이상	(426)	53.3
모름/ 무 응 답	(11)	1.4
○ 직 업 ○		
농업/ 임업/ 어업	(39)	4.8
자 영 업	(103)	12.9
판매/ 영업/ 서비스	(60)	7.5
생산/ 기능/ 노무직	(42)	5.2
사무/ 관리/ 전문직	(159)	19.9
주 부	(193)	24.1
학 생	(103)	12.9
무직/ 기타/ 무응답	(100)	12.5
○ 가 구 소 득 ○		
100 만원 이하	(109)	13.6
101-200 만원	(137)	17.2
201-300 만원	(188)	23.5
301-400 만원	(107)	13.4
401 만원 이상	(167)	20.9
기타/ 무 응 답	(91)	11.4
○ 권 역 ○		
서 울	(170)	21.2
인 천 / 경 기	(220)	27.5
대 전 / 충 청	(80)	10.1
광 주 / 전 라	(83)	10.4
대 구 / 경 북	(84)	10.5
부산/울산/경남	(128)	16.1
강 원 / 제 주	(33)	4.2
○ 국정 운영 평가 ○		
긍 정 평 가	(353)	44.1
부 정 평 가	(422)	52.8
모름 / 무응답	(25)	3.1
○ 이 념 성 향 ○		
진 보 (0-4)	(186)	23.3
중 도 (5)	(336)	42.0
보 수(6-10)	(229)	28.6
모름 / 무응답	(49)	6.1
○ 정 당 지 지 도 ○		
한 나 라 당	(225)	28.1
민 주 당	(160)	19.9
자 유 선 진 당	(14)	1.7
민 주 노 동 당	(46)	5.8
친 박 연 대	(35)	4.4
창 조 한 국 당	(7)	.9
진 보 신 당	(6)	.7
국 민 참 여 당	(15)	1.8
기 타	(50)	6.2
지지정당 없음	(222)	27.8
모름 / 무응답	(21)	2.6

[표 1]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문1]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Base=전체	사례수 (명)	①매우잘 하고있다	②대체로 잘하고있다	①+②	③별로못 하고있다	④전혀못 하고있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	(800)	9.5	34.6	44.1	34.1	18.7	52.8	3.1	100.0
○ 성 별 ○									
남 자	(395)	11.3	32.9	44.3	32.4	21.1	53.4	2.3	100.0
여 자	(405)	7.7	36.2	43.9	35.8	16.4	52.1	3.9	100.0
○ 연 령 ○									
19 - 29 세	(164)	2.1	25.6	27.7	48.4	22.0	70.4	2.0	100.0
30 - 39 세	(177)	3.9	27.5	31.4	34.8	30.1	64.8	3.8	100.0
40 - 49 세	(181)	8.0	36.1	44.1	31.8	21.9	53.8	2.1	100.0
50 대 이 상	(277)	18.5	43.4	61.9	26.7	7.3	34.0	4.1	100.0
○ 학 력 ○									
중 졸 이 하	(123)	13.9	42.4	56.3	27.8	8.5	36.3	7.4	100.0
고 졸	(239)	8.7	39.3	48.0	35.4	14.9	50.3	1.7	100.0
전문대 재 이상	(426)	8.5	29.0	37.5	35.5	24.3	59.7	2.8	100.0
모름/ 무 응 답	(11)	17.2	59.8	77.0	23.0	.0	23.0	.0	100.0
○ 직 업 ○									
농업/ 임업/ 어업	(39)	1.9	55.1	57.0	23.1	12.8	36.0	7.0	100.0
자 영 업	(103)	11.0	39.8	50.8	36.1	12.0	48.1	1.1	100.0
판매/ 영업/ 서비스	(60)	8.1	18.9	27.0	40.6	27.1	67.7	5.3	100.0
생산/ 기능/ 노무직	(42)	4.6	43.5	48.2	25.3	21.8	47.1	4.7	100.0
사무/ 관리/ 전문직	(159)	8.0	25.6	33.6	38.0	26.9	65.0	1.4	100.0
주 부	(193)	11.0	40.1	51.1	30.7	15.8	46.4	2.4	100.0
학 생	(103)	3.3	23.7	27.0	51.1	19.8	71.0	2.0	100.0
무직/ 기타/ 무응답	(100)	19.7	41.8	61.5	18.7	12.8	31.5	7.1	100.0
○ 가 구 소 득 ○									
100 만원 이하	(109)	13.8	35.0	48.8	35.3	8.3	43.6	7.6	100.0
101-200 만원	(137)	10.9	39.0	49.9	28.2	19.6	47.7	2.4	100.0
201-300 만원	(188)	7.7	36.3	43.9	35.4	17.8	53.2	2.9	100.0
301-400 만원	(107)	5.5	29.2	34.7	39.2	25.1	64.3	1.0	100.0
401 만원 이상	(167)	9.5	32.2	41.7	32.9	24.3	57.2	1.1	100.0
기타/ 무 응 답	(91)	10.8	34.8	45.6	34.9	13.8	48.8	5.6	100.0
○ 권 역 ○									
서 울	(170)	12.3	34.5	46.8	31.7	16.9	48.6	4.6	100.0
인 천 / 경 기	(220)	10.9	32.8	43.6	32.8	20.9	53.6	2.7	100.0
대 전 / 충 청	(80)	5.5	32.4	37.9	33.7	21.6	55.2	6.8	100.0
광 주 / 전 라	(83)	1.5	22.7	24.1	43.4	29.6	73.0	2.9	100.0
대 구 / 경 북	(84)	12.8	52.2	65.0	27.4	7.6	35.0	.0	100.0
부산/울산/경남	(128)	9.8	36.5	46.3	37.7	15.1	52.8	.8	100.0
강 원 / 제 주	(33)	6.4	30.1	36.5	35.7	21.0	56.7	6.8	100.0
○ 국정 운영 평가 ○									
긍 정 평 가	(353)	21.6	78.4	100.0	.0	.0	.0	.0	100.0
부 정 평 가	(422)	.0	.0	.0	64.6	35.4	100.0	.0	100.0
모름 / 무응답	(25)	.0	.0	.0	.0	.0	.0	100.0	100.0
○ 이 념 성 향 ○									
진 보 (0-4)	(186)	3.4	31.5	34.8	34.9	28.9	63.7	1.5	100.0
중 도 (5)	(336)	8.1	32.6	40.7	37.9	19.3	57.2	2.2	100.0
보 수(6-10)	(229)	15.5	41.5	57.0	28.2	12.8	41.0	2.0	100.0
모름 / 무응답	(49)	14.6	28.0	42.5	32.4	3.6	36.0	21.5	100.0
○ 정 당 지 지 도 ○									
한 나 라 당	(225)	26.4	52.3	78.8	17.0	2.4	19.4	1.9	100.0
민 주 당	(160)	2.3	20.0	22.3	41.9	33.9	75.9	1.8	100.0
자 유 선 진 당	(14)	7.5	37.2	44.7	38.4	16.8	55.3	.0	100.0
민 주 노 동 당	(46)	.0	21.3	21.3	28.5	50.2	78.7	.0	100.0
친 박 연 대	(35)	3.2	46.1	49.3	40.2	10.5	50.7	.0	100.0
창 조 한 국 당	(7)	.0	29.0	29.0	42.7	28.3	71.0	.0	100.0
진 보 신 당	(6)	.0	.0	.0	33.7	66.3	100.0	.0	100.0
국 민 참 여 당	(15)	.0	7.0	7.0	38.7	54.3	93.0	.0	100.0
기 타	(50)	4.3	29.3	33.5	55.7	8.5	64.2	2.3	100.0
지지정당 없음	(222)	3.5	30.8	34.3	41.5	18.3	59.8	5.9	100.0
모름 / 무응답	(21)	3.7	47.6	51.3	21.4	9.4	30.7	17.9	100.0

[표 2] 한명숙 전 총리 금품수수혐의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문2]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금품수수혐의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사례수 (명)	정치적인 의도가개입된수사다	법에의한 정당한수사다	모름/ 무응답	계
		%	%	%	%
▣ 전 체 ▣	(800)	48.7	36.9	14.5	100.0
○ 성 별 ○					
남 자	(395)	51.1	37.7	11.2	100.0
여 자	(405)	46.4	36.0	17.6	100.0
○ 연 령 ○					
19 - 29 세	(164)	44.6	37.4	18.0	100.0
30 - 39 세	(177)	65.1	20.8	14.2	100.0
40 - 49 세	(181)	59.6	30.7	9.8	100.0
50 대 이 상	(277)	33.5	50.8	15.6	100.0
○ 학 력 ○					
중 졸 이 하	(123)	28.2	47.4	24.5	100.0
고 졸	(239)	48.7	35.4	15.9	100.0
전문대 재 이상	(426)	55.0	34.5	10.5	100.0
모름/ 무 응 답	(11)	35.9	38.8	25.4	100.0
○ 직 업 ○					
농업/ 임업/ 어업	(39)	25.6	48.3	26.1	100.0
자 영 업	(103)	57.8	34.1	8.0	100.0
판매/ 영업/ 서비스	(60)	64.9	32.2	2.9	100.0
생산/ 기능/ 노무직	(42)	39.6	43.1	17.3	100.0
사무/ 관리/ 전문직	(159)	65.4	24.9	9.7	100.0
주 부	(193)	46.7	39.7	13.7	100.0
학 생	(103)	40.8	39.9	19.3	100.0
무직/ 기타/ 무응답	(100)	27.8	45.9	26.4	100.0
○ 가 구 소 득 ○					
100 만원 이하	(109)	32.9	43.1	24.0	100.0
101-200 만원	(137)	49.4	40.7	10.0	100.0
201-300 만원	(188)	50.4	39.1	10.5	100.0
301-400 만원	(107)	50.5	37.4	12.1	100.0
401 만원 이상	(167)	65.2	26.6	8.2	100.0
기타/ 무 응 답	(91)	30.6	37.2	32.2	100.0
○ 권 역 ○					
서 울	(170)	44.0	40.7	15.3	100.0
인 천 / 경 기	(220)	54.3	32.3	13.3	100.0
대 전 / 충 청	(80)	46.8	41.3	11.9	100.0
광 주 / 전 라	(83)	65.9	21.6	12.5	100.0
대 구 / 경 북	(84)	33.7	48.8	17.5	100.0
부산/울산/경남	(128)	45.8	37.6	16.6	100.0
강 원 / 제 주	(33)	45.8	41.5	12.7	100.0
○ 국정 운영 평가 ○					
긍 정 평 가	(353)	28.5	56.0	15.5	100.0
부 정 평 가	(422)	67.5	21.9	10.6	100.0
모름 / 무응답	(25)	14.9	19.8	65.3	100.0
○ 이 념 성 향 ○					
진 보 (0-4)	(186)	60.7	26.0	13.3	100.0
중 도 (5)	(336)	52.8	31.6	15.5	100.0
보 수(6-10)	(229)	39.4	50.5	10.1	100.0
모름 / 무응답	(49)	18.3	50.0	31.7	100.0
○ 정 당 지 지 도 ○					
한 나 라 당	(225)	24.8	64.7	10.5	100.0
민 주 당	(160)	71.1	20.8	8.1	100.0
자 유 선 진 당	(14)	24.6	61.5	13.9	100.0
민 주 노 동 당	(46)	68.9	19.2	12.0	100.0
친 박 연 대	(35)	41.0	46.6	12.4	100.0
창 조 한 국 당	(7)	72.4	.0	27.6	100.0
진 보 신 당	(6)	100.0	.0	.0	100.0
국 민 참 여 당	(15)	66.9	27.2	5.9	100.0
기 타	(50)	66.0	21.4	12.6	100.0
지지정당 없음	(222)	50.4	27.6	22.0	100.0
모름 / 무응답	(21)	23.6	31.5	45.0	100.0

[표 3] 정당지지도

[문3] ___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없음, 모름, 무응답인 경우) 그래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Base=전체	사례수 (명)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가칭국민참여당	기타
		%	%	%	%	%	%	%	%	%
▣ 전 체 ▣	(800)	28.1	19.9	1.7	5.8	4.4	.9	.7	1.8	6.2
○ 성 별 ○										
남 자	(395)	27.6	19.0	1.2	5.9	6.1	1.1	.7	2.8	5.9
여 자	(405)	28.7	20.9	2.3	5.7	2.7	.7	.7	.9	6.6
○ 연 령 ○										
19 - 29 세	(164)	19.8	24.8	1.4	4.1	3.0	1.8	.6	2.5	7.3
30 - 39 세	(177)	17.9	28.2	.0	8.1	4.1	1.8	2.7	2.7	6.3
40 - 49 세	(181)	25.1	16.3	.6	9.3	5.3	.5	.0	3.2	9.6
50 대 이 상	(277)	41.6	14.2	3.7	3.1	4.7	.0	.0	.0	3.4
○ 학 력 ○										
중 졸 이 하	(123)	42.4	20.1	2.5	.8	6.1	.0	.0	.0	1.4
고 졸	(239)	25.7	17.9	1.9	5.7	4.9	.5	.6	2.6	7.5
전문대 재 이상	(426)	25.7	21.3	1.4	7.5	3.7	1.4	1.0	2.0	6.9
모름/ 무 응 답	(11)	17.8	9.1	.0	.0	.0	.0	.0	.0	8.8
○ 직 업 ○										
농업/ 임업/ 어업	(39)	40.9	19.2	.0	2.6	9.7	.0	.0	.0	2.6
자 영 업	(103)	27.2	18.1	.9	4.7	8.7	.0	.0	1.1	4.8
판매/ 영업/ 서비스	(60)	12.4	26.4	.0	5.1	6.3	.0	6.1	2.0	10.5
생산/ 기능/ 노무직	(42)	37.5	22.1	.0	12.4	.0	.0	.0	2.7	4.9
사무/ 관리/ 전문직	(159)	19.6	21.2	1.2	7.3	6.2	1.4	.7	4.1	9.0
주 부	(193)	36.2	20.2	2.8	5.6	1.3	1.0	.0	.9	6.2
학 생	(103)	20.4	19.1	2.2	4.7	3.0	2.0	.9	2.9	3.9
무직/ 기타/ 무응답	(100)	35.6	15.6	3.3	5.0	2.8	1.0	.0	.0	5.3
○ 가 구 소 득 ○										
100 만원 이하	(109)	37.3	19.0	3.5	2.0	7.1	.0	.8	.8	2.1
101-200 만원	(137)	29.8	18.7	1.1	7.9	4.7	.0	1.0	2.0	4.5
201-300 만원	(188)	30.2	20.4	.9	5.8	2.0	1.5	.5	2.3	6.8
301-400 만원	(107)	24.6	27.7	2.9	8.5	4.0	3.9	2.3	.8	6.9
401 만원 이상	(167)	24.2	18.4	.6	7.0	6.1	.0	.0	2.8	9.5
기타/ 무 응 답	(91)	21.7	15.6	2.8	1.8	2.7	.0	.0	1.2	6.0
○ 권 역 ○										
서 울	(170)	30.1	15.3	1.1	4.4	6.0	2.1	.0	1.3	8.3
인 천 / 경 기	(220)	25.7	22.7	1.8	8.0	2.6	.4	.4	2.1	6.2
대 전 / 충 청	(80)	25.4	18.9	6.3	6.0	3.9	.0	3.0	2.0	3.7
광 주 / 전 라	(83)	11.4	50.7	1.0	2.6	2.5	1.2	.0	3.7	4.5
대 구 / 경 북	(84)	43.7	9.0	.0	2.6	8.4	.0	2.8	1.0	4.7
부산/울산/경남	(128)	32.0	11.9	1.5	8.2	3.8	1.3	.0	.0	7.3
강 원 / 제 주	(33)	28.1	9.4	.0	5.0	5.9	.0	.0	7.3	6.8
○ 국정 운영 평가 ○										
긍 정 평 가	(353)	50.3	10.1	1.7	2.8	4.9	.6	.0	.3	4.8
부 정 평 가	(422)	10.3	28.7	1.8	8.7	4.2	1.2	1.3	3.2	7.6
모름 / 무응답	(25)	16.6	11.7	.0	.0	.0	.0	.0	.0	4.5
○ 이 념 성 향 ○										
진 보 (0-4)	(186)	20.3	24.6	.0	10.0	5.0	.0	.5	3.1	8.4
중 도 (5)	(336)	27.6	21.0	1.1	6.0	3.1	1.5	.8	1.5	6.9
보 수(6-10)	(229)	35.0	16.1	3.7	3.0	6.7	.5	.5	1.4	4.4
모름 / 무응답	(49)	29.4	12.3	3.1	1.8	.0	1.8	1.8	1.8	2.3
○ 정 당 지 지 도 ○										
한 나 라 당	(225)	100.0	.0	.0	.0	.0	.0	.0	.0	.0
민 주 당	(160)	.0	100.0	.0	.0	.0	.0	.0	.0	.0
자 유 선 진 당	(14)	.0	.0	100.0	.0	.0	.0	.0	.0	.0
민 주 노 동 당	(46)	.0	.0	.0	100.0	.0	.0	.0	.0	.0
친 박 연 대	(35)	.0	.0	.0	.0	100.0	.0	.0	.0	.0
창 조 한 국 당	(7)	.0	.0	.0	.0	.0	100.0	.0	.0	.0
진 보 신 당	(6)	.0	.0	.0	.0	.0	.0	100.0	.0	.0
국 민 참 여 당	(15)	.0	.0	.0	.0	.0	.0	.0	100.0	.0
기 타	(50)	.0	.0	.0	.0	.0	.0	.0	.0	100.0
지지정당 없음	(222)	.0	.0	.0	.0	.0	.0	.0	.0	.0
모름 / 무응답	(21)	.0	.0	.0	.0	.0	.0	.0	.0	.0

[계 속]

[표 3] 정당지지도

[문3] ___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없음, 모름, 무응답인 경우) 그래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Base=전체	지지하는 정당없음	모름/ 무응답	계
	%	%	%
▣ 전 체 ▣	27.8	2.6	100.0
○ 성 별 ○			
남 자	27.7	2.1	100.0
여 자	27.8	3.1	100.0
○ 연 령 ○			
19 - 29 세	31.0	3.6	100.0
30 - 39 세	26.5	1.8	100.0
40 - 49 세	29.8	.5	100.0
50 대 이 상	25.3	3.9	100.0
○ 학 력 ○			
중 졸 이 하	21.1	5.5	100.0
고 졸	30.1	2.7	100.0
전문대 재 이상	28.4	.8	100.0
모름/ 무 응 답	29.8	34.5	100.0
○ 직 업 ○			
농업/ 임업/ 어업	20.7	4.3	100.0
자 영 업	34.5	.0	100.0
판매/ 영업/ 서비스	30.0	1.2	100.0
생산/ 기능/ 노무직	18.7	1.6	100.0
사무/ 관리/ 전문직	28.0	1.5	100.0
주 부	24.2	1.6	100.0
학 생	37.2	3.7	100.0
무직/ 기타/ 무응답	23.0	8.4	100.0
○ 가 구 소 득 ○			
100 만원 이하	23.9	3.6	100.0
101-200 만원	27.5	2.8	100.0
201-300 만원	28.4	1.1	100.0
301-400 만원	18.4	.0	100.0
401 만원 이상	29.5	1.8	100.0
기타/ 무 응 답	39.7	8.5	100.0
○ 권 역 ○			
서 울	29.6	1.8	100.0
인 천 / 경 기	27.8	2.4	100.0
대 전 / 충 청	26.8	3.9	100.0
광 주 / 전 라	20.9	1.5	100.0
대 구 / 경 북	26.0	1.8	100.0
부산/울산/경남	31.1	2.8	100.0
강 원 / 제 주	29.1	8.5	100.0
○ 국정 운영 평가 ○			
긍 정 평 가	21.6	3.0	100.0
부 정 평 가	31.5	1.5	100.0
모름 / 무응답	52.3	14.8	100.0
○ 이 념 성 향 ○			
진 보 (0-4)	28.1	.0	100.0
중 도 (5)	28.1	2.3	100.0
보 수(6-10)	26.9	2.0	100.0
모름 / 무응답	28.7	17.0	100.0
○ 정 당 지 지 도 ○			
한 나 라 당	.0	.0	100.0
민 주 당	.0	.0	100.0
자 유 선 진 당	.0	.0	100.0
민 주 노 동 당	.0	.0	100.0
친 박 연 대	.0	.0	100.0
창 조 한 국 당	.0	.0	100.0
진 보 신 당	.0	.0	100.0
국 민 참 여 당	.0	.0	100.0
기 타	.0	.0	100.0
지지정당 없음	100.0	.0	100.0
모름 / 무응답	.0	100.0	100.0